

Laurence Sterne의 소설들에 나타난 ‘센티멘탈리즘’

김 보 원

I. 서 론

문학 비평에서 형식과 내용을 분리하여 논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지만 특히 형식적인 측면에 관심을 쏟게 하는 작품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Laurence Sterne(1713~68)의 *The Life and Opinions of Tristram Shandy, Gentleman*(1759~67)은 그런 작품들 중의 하나이다.¹⁾ 이 소설에 대한 논의는 우선 정상적인 독서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드는 표면적인 혼란스러움(oddities and eccentricities)을 어떻게 넘어서느냐에서부터 시작된다. 그 혼란상의 이면에는 어떤 짜여진 이야기가 있는 것인가? 기존의 문학적 관행(convention)을 무시한 기발하고 기상천외한 형식상의 실험들은 어떤 효과를 위해 만들어진 것인가? 작품의 제명(題名)에 쓰인 대로 이 소설의 주인공은 Tristram Shandy며 그의 ‘일생과 의견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가? 아니면, 즐거워없는 일탈부만이 전체 이야기를 구성하는 것인가? 대충 이와 같은 의문들이 *Tristram Shandy*를 읽는 중에 쏟아진다.

그러나 작품의 첫 장을 열면서 이러한 의문은 일견 해결되는 듯하기도 하다. 주인공인 Tristram이 잉태되던 순간(물론 후일의 회상에 의한 것이지만)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독자들은 잉태에서 출생, 그리고 뒤이어지는 한 인물의 성장을 곧 기대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감은 쉽게 배반된다. HOMUNCULUS(난장이, 여기서는 精子的 뜻으로 쓰임)라는 용어를 사용한 다소 짐작치 못한 잉태순간의 묘사에서 벌써 독자들에게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데, 2권이 끝나도록 주인공이 태어나지 않게 되면서 그러한 느낌은 더욱 짙어진다. 이 작품은 보통의 소설과는 다르며, 특이한 방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그들은 하기 시작하게 되며, 따라서 이야기의 내용보다는 그 전개 방식, 형식적 특성에 대한 관심이 우선적으로 생겨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법상의 새로움이나 형식적인 실험에 대한 관심은 작가 자신의 작품속 발언때문에 더욱 증폭되는 면도 없지 않다.

For in writing what I have set about, I shall confine myself neither to his [Mr. Horace's] rules, nor to any man's rules that ever lived. (p.8)

And what of this new book the whole world makes such a rout about? —Oh! 'tis out of all plumb, my lord,— quite an irregular thing! —not one of the angles at the four corners was a right angle. (p.181)

All I wish is, that it may be a lesson to the world, “to let people tell their stories their own way.” (p.633)

1) Laurence Sterne, *The Life and Opinions of Tristram Shandy, Gentleman* ed. James A. Work (Indianapolis: The Odyssey Press, 1940). 이하 *Tristram Shandy*로 줄이고 인용시에는 페이지 수만 표기함.

작품의 여러 곳에 산재한 이와 같은 포괄적인 언급 외에도 작가는 일탈기법(digression)을 비롯한 자신의 글쓰기 방식에 대한 해명 및 주장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또 그러한 주장은 실제로 작품내에서 다양한 실험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러시아 형식주의 비평가인 Victor Shklovsky가 자신의 이론을 검증할 작품으로 *Tristram Shandy*를 택한 것은 이렇게 볼 때 자연스러운 일이었다.²⁾ 문학의 문학성(literariness)을 ‘낯설게하기’(defamiliarization)로 파악하는 그들의 비평적 입장에서 볼 때 이 소설은 그 원칙에 잘 어울리는 것이었으며 시간전도(time-shift), 일탈기법(digression), 의도적 위치변경(displacement, transposition), 다양한 모티프사용 등이 중요한 예증이 된다. *Tristram Shandy*의 실험정신과 형식적 특성들은 현대소설의 그 어느 것에 비추어도 새롭고, 놀라운 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창작기법에 대한 Sterne의 집요한 관심, 실험정신에도 불구하고 그 기법이 담고 있는 내용, 즉 어지럽게 얽히고 설친 일견 혼란스러워 보이는 에피소드들 가운데서 숨겨진 스토리와 의미를 발견하려는 시도 역시 많이 있었다. 또한 18세기로서는 분명히 하나의 이면이 있었으며 현대의 실험소설로 보아도 손색이 없을 이 작품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 담겨 있는 당대의 지적, 문학적 전통 및 사회적 분위기와 연관시켜 보려는 관점도 만만찮게 있어 왔다. *Tristram Shandy*가 출판 당시 대단한 대중적 인기를 얻었다는 사실이 이 두 가지 시도 모두를 지지해 줄 수 있는 방증이 된다. Rabelais, Cervantes에서 이어지는 풍자와 해학의 휴머니즘전통, Locke의 철학과 Robert Burton의 *The Anatomy of Melancholy* (1621) 등에 이 작품이 지고 있는 빛들, 보다 가까이로는 Arbuthnot, Pope, Swift 등의 ‘유식한 재담’(learned wit)의 전통 등이 *Tristram Shandy*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나 하는 점들이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차차 밝혀진다.³⁾ 출판당시나 19세기의 혹평을 불식하는 재평가가 현대에 와서 *Tristram Shandy*에 대해 이루어지게 된 것도 이러한 측면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연구성과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 글은 위의 두 가지 시도—18세기적인 전통과의 관계 및 *Tristram Shandy*를 지탱하는 중심되는 이야기 줄거리를 찾으려는—를 ‘센티멘탈리즘’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맺어보려는 노력의 결과이다.⁴⁾ 즉 *Tristram Shandy* 전편을 이끌어 가는 주제정신은 ‘센티멘탈리즘’이라는 18세기 후반 특유의 사고방식이며 이 주제의식은 구체적으로 등장인물의 성격창조 및 스토리의 전개, 일탈기법 등에서 폭넓게 수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Sterne 및 *Tristram Shandy*에 관한 논의에서는 항상 ‘센티멘탈리즘’이 거론되어 왔으나 대개는 다른 중요한 주제—가령 기법상의 실험이나 내레이터 문제, 풍자와 유머—에

2) Victor Shklovsky, "Sterne's *Tristram Shandy*: Stylistic Commentary," *Russian Formalist Criticism: Four Essays*, ed. Lee T. Lemon and Marion J. Reis (Lincoln: Univ. of Nebraska Press, 1965), pp. 25-27 참조.

3) Lodwick Hartley, *Laurence Sterne in the Twentieth Century: An Essay and Bibliography of Sternean Studies, 1900~1965* (Chapel Hill: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66), pp. 12-34 참조.

4) 감상주의(感傷主義)는 다소 경멸적으로 쓰이고 있는 말이므로 원어 그대로 ‘센티멘탈리즘’으로 쓰기로 한다. Herbert Read는 O.E.D.에 의하면 ‘Sentimental’이라는 말은 1749년에 최초로 사용되었으며 19세기 초부터 의미의 전락을 겪기 시작하여 1827년에 이미 Scott가 ‘a sentimental tear’로 표현할 만큼 현대적인 의미에 가까워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Herbert Read, *Essays in Literary Criticism* (London: Faber and Faber, 1969), pp. 122-23 참조.

가려져서 부차적인 문제로 언급되는 정도였다. 예컨대 Toby Shandy의 성격의 일면을 밝힐 때나 Le Fever 스토리의 감상적인 측면을 강조할 때 거론되곤 하였다. 여기서 특히 ‘센티멘탈리즘’을 이 작품의 일차적인 주제로 부각시켜 논의하려는 것은 위에서 밝힌 대로 이 작품이 지닌 현대성의 이면에는 그보다 더 중요하게 당대적인 사고와 분위기의 표현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을 규명해 보고자 함이며(2장), 다음으로는 일탈기법 역시 ‘센티멘탈리즘’ 정신의 한 표현임을 밝히고자 함이다(4장). 마지막으로 Sterne의 또 하나의 소설인 *A Sentimental Journey*에는 ‘센티멘탈리즘’이 보다 집중적으로 취급되면서 *Tristram Shandy*에서와는 상당한 대조를 이루며 나타나는데, 이런 측면에서도 Sterne의 전반적인 작가적 특성을 이해하는 데는 ‘센티멘탈리즘’이 적절한 주제라 할 수 있다.

II. 18세기와 ‘센티멘탈리즘’

Alexander Pope의 시대를 ‘이성의 시대’(Age of Reason)라 부를 때 우리는 18세기 후반의 시기를 ‘감성의 시대’(Age of Sensibility)라 칭한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하여야 할 사실은 당시의 ‘감성’(Sensibility)이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쓰는 것보다 훨씬 포괄적이고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는 점이다. 사랑과 동정, 연민, 공감, 착한 마음씨 등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모든 고상한 감정은 이 말로 표현될 수 있었다. 그러한 자질은 또한 인간의 본성에 내재한 것으로 믿어져서 그 힘을 통해서 인간은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감동시키며 궁극에는 세계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고 그 시대는 믿고 있었다. *A Sentimental Journey*에서 Sterne이 노래한 ‘감성’(Sensibility)에 대한 찬가를 들어 보자.⁵⁾

—Dear Sensibility! source inexhausted of all that’s precious in our joys, or costly in our sorrows! thou chainest thy martyr down upon his bed of straw—and ’tis thou who lifts him up to Heaven—eternal fountain of feelings!—’tis here I trace thee—and this is thy divinity which stirs within me—not that, in some sad and sickening moments, my soul shrinks back upon herself, and startles at destruction—mere pomp of words!— but that I feel some generous joys and generous cares beyond myself—all comes from thee, great, great Sensorium of the world! (p. 107)

‘감성’(Sensibility)은 인생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맛볼 수 있는 확실한 길이었으며, 이것을 지닌 사람은 이 세상의 선함과 아름다움을 발견하여 널리 전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물론 이러한 분위기는 18세기 후반의 가장 특징적인 현상이었지만 하루 아침에 형성된 것은 아니었다. 전시대인 Pope의 시대도 비록 신고전주의(Neo-classicism)의 문학적 이상이 절정에 이르러 있던 시대였지만 그 이면으로는 이성(Reason)과 절제(Restraint)를 거부하고 감정(Feeling)과 본능(Instinct)을 중시하는 사회적, 문학적 경향이 점차 확산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사회적으로 가장 큰 변화는 감리교(Methodism)의 융성이었다. 이제 이성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인간의 본성에 내재한 ‘감성’과 구원을 갈구하는 내적인 체험에 초점이 모아졌다. 머리(head)가 아닌 마음(heart)의 종교가 기도와 찬양의 대상이 된 것이다. 문학적으로도 가령 1726년에 발표된 Jonathan Swift의 *Gulliver’s Travels*의 궁극적 결론이 인간혐오(Misanthropy), 특히 인간의 이성에 대한 강한 회의로

5) Albert J. Kuhn, ed. *Three Sentimental Novels*(New York: Ohio State Univ., 1970)에 수록되어 있으며 이하 페이지수는 여기에 따름.

귀결되는 것은 기억할 만한 사실이며, 아울러 *Tristram Shandy* 보다 약 20년 앞서 발표된 Samuel Richardson의 *Pamela*나 *Clarissa*에도 이미 ‘센티멘탈리즘’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은 18세기 후반의 변모에 대한 예고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뒤이어 Thomas Gray, William Collins 등의 시(詩)와 Oliver Goldsmith, Henry Mackenzie 등의 소설이 나타나면서 ‘센티멘탈리즘’은 그 절정기를 맞게 된다.

18세기 후반 영국사회를 풍미한 ‘센티멘탈리즘’의 철학적 연원은 일반적으로 Shaftesbury (1671~1713, 정확하게는 The 3rd Earl of Shaftesbury)와 Francis Hutcheson(1694~1746)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8세기 초까지만 해도 Thomas Hobbes의 철학은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고 사악한 존재이며 그를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성의 힘으로, 또 제도와 전통의 권위로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거기에는 신의 은총이 개입할 여지가 없으며 무신론과 비판주의가 스며들어 있었다. Shaftesbury의 철학은 이와 같은 Hobbes의 비판주의에 대한 도전으로서 인간성의 선함에 대한 신뢰에 바탕을 둔 낙관주의적 도덕론이다. 인간은 선천적인 도덕의식을 지니고 있으며 그로 인해 선을 행하고 올바른 목표를 지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인간의 행복은 타인에게 관용을 베풀고 공감을 느끼는 데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에 합당하기 때문이다. Basil Willey는 Shaftesbury의 철학을 ‘자연도덕’(natural morality)으로 명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⁶⁾ 첫째, 자연은 신성하고 완전하다. 신의 창조물인 자연은 상호연관되고 상호의존적인 부분들로 구성된 신성하고 완전한 체계라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한편으로는 우주를 혼란상태로 규정하는 무신론자들과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의 원천적인 타락을 강조하는 정통교리주의자들에 대한 도전이었다. 둘째, 진정한 종교는 계시가 아닌 ‘자연’에 기초하여야 한다. 계시는 곧 기적에서 비롯되며 기적은 아름답고, 조화로운 질서에서의 이탈이기 때문이다. 셋째, ‘자연’과 마찬가지로 인간은 본질적으로 선하며, 따라서 사회적이다. Hobbes는 ‘인간은 야수’라고 주장하지만 그 주장 자체가 타인을 위한 선한 행동이라는 점에서 Hobbes는 결코 야수가 아니라는 것이다.⁷⁾ 넷째, 인간이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도덕의식은 조화와 질서를 인식할 수 있는 미적감각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며 ‘평등과 정의를 향한 진정한 감정 혹은 사랑’과 거의 동일한 것이다. Shaftesbury는 도덕을 완전히 감정(Sentiment)의 문제로 치환하고 있지는 않지만 감정이 이성과 일치하지 않을 때는 우리는 진정으로 도덕적일 수 없다고 그는 말한다. 마지막으로 그는 상식과 선량함, 해학, 정신활동의 자유로움 등의 가치를 높이 평가했다. 미신과 종교적 광기, 당파적 사고로 타락한 사회에는 다른 해결책이 없다고 그는 생각했던 것이다.

Shaftesbury가 강조한 ‘자연’ 상태는 ‘원래’(Original)의 상태가 아니다. 따라서 ‘감성’(Sensibility)이란 개념도 자연상태의 감정이 아니라 원래의 의도가 충분히 구현된, 교양된 상태의 감정인 것이다. 그러나 세기가 진행되면서 자연 그 자체의 상태인 과거를 향한 복고풍의 바람이 불었다. 원시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야만족인 고트족(the Goths)이나 아메리칸 인디언들을 ‘고상한 야만인’(noble savage)으로 찬양하는 풍조가 생긴다. 그리

6) Basil Willey, *The Eighteenth Century Background*(Boston: Beacon Press, 1940), pp. 57-75 참조.

7) "The Philosopher, however, was kind, in telling us his Thought. 'Twas a Token of his Fatherly Love of Mankind." Shaftesbury, from *Sensus Communis: An Essay on the Freedom of Wit and Humour*. Tillotson et al. ed., *Eighteenth-Century English Literature* (New York: Harcourt, Brace & World, 1969), p. 283.

고 그 경향은 Rousseau의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명제에서 최고의 표현을 보게 된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셉티멘탈리즘은 당시의 활력과 에너지를 상실한 채 경멸적이고, 부정적인 의미로 전락해 있다. 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기억되어야 할 것은 그 당시의 ‘셉티멘탈리즘’은 결코 천박하거나 무력하지 않았으며 강한 낙관론 속에서 전사회적인 공감대를 얻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셉티멘탈리즘’의 주요 특징이 바로 박애주의였기 때문이다. *A Sentimental Journey*에서 Yorick이 새장에 갇힌 찌르레기 한 마리를 바라보며 자유의 소중함을 실감하는 장면의 ‘감상’(感傷)은 그 근본에 있어서는 유럽대륙과 아메리카에서 정치적 혁명을 배태해내었던 시대적 정신과 일치하였던 것이다.⁸⁾

Ⅲ. Toby와 Walter

*Tristram Shandy*가 과연 하나의 계획된 구도를 가진 완결된 작품인가 하는 데는 많은 의문이 있어왔다. 매년 두 권씩 40년간을 집필하겠다는 작가의 호언장담 따도 있겠지만, 여기에는 독자를 현혹시키는 말장난이나 지나칠 만큼의 일탈기법의 사용, 또한 현대소설의 난해성에 비견되는 독서자체의 어려움에 그 일차적인 원인이 있을 것이다.

1951년에 발표된 Wayne Booth의 ‘Did Sterne Complete *Tristram Shandy*?’라는 논문은 그 어려움을 뚫고 이 문제에 해결책을 제시한 최초의 시도로 평가된다.⁹⁾ 1권에서 8권까지의 모든 이야기는 9권의 대단원을 향한 포석이었으며 그 일관된 주제는 Toby와 Wadman 부인의 사랑이야기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물론 그것은 사랑의 완성이 아니라 9권 31장에서 밝혀지듯이 Toby가 품어왔던 순결한 사랑이 어떻게 천박한 Wadman부인에 의해 좌절되고 말았는가 하는 내용이다. Booth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많은 증거를 제시한다. 분할출판된 2, 4, 6, 8권의 끝에는 항상 다음 회에 대한 구상이 약속되는데 9권에서는 그것이 없다는 점, 9권의 마지막 장에는 지금까지 등장한 모든 인물들이 함께 모이는 장면이 만들어진다는 점, 작가 스스로 9권의 이야기를 향해 서둘러 달려 왔으며(“hastening towards this point of it”) 이 이야기가 자신이 전할 최고의 주제(“the choicest morsel of what I had to offer to the world”)라고 거듭 밝힌 점 등이 그 근거의 일부를 이룬다.¹⁰⁾

1권에서 8권에 이르는 길고 긴 이야기 속에서 Toby와 Wadman 부인의 사랑이야기를 뒷받침해 줄 몇 가닥의 꼬나불을 찾아낸 Booth의 노력은 의당 높이 평가해야 하겠지만 그 주제와 직접 관련이 없는 많은 이야기들을 고려할 때 작품 경제의 원칙으로도 그것은 작품 전체를 포용하기에는 너무 왜소한 주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우선 논의의 편의를 위해 전체를 몇 부분으로 나누어 보기로 하자.

- (I) 1권에서 6권(정확하게는 6권 20장) : Tristram의 잉태, 출산, 세례, 교육을 둘러싼 Walter의 계획 실패 및 이와 관련된 에피소드.
- (II) 7권 : Tristram의 프랑여행.
- (III) 6권 21장~끝, 8~9권 : Toby의 전쟁놀이 및 Wadman 부인과의 사랑이야기.

8) Kuhn의 앞의 책 p. XI 참조.

9) Wayne Booth, “Did Sterne Complete *Tristram Shandy*?” MP, XLVII(1951), pp.172-183 참조.

10) 이외에도 유독 1권과 9권 앞에만 붙은 헌사(dedication), 2권과 4권에서 암시된 Toby의 형 Tom에 대한 이야기가 9권에서 완성되는 점, 1권과 9권의 구조적 유사성 및 Wadman 부인과의 사랑에 대한 계속적인 암시를 들고 있다.

(I)과 (II)는 Tristram이 이야기 전개의 중심이 된다는 점에서 함께 묶어질 수 있으나 정작 Tristram의 생애가 그려진것은 정확하게는 그의 프랑스여행을 기록한 7권뿐이고 (I)은 오히려 Tristram 주위의 인물들 특히 Walter와 Toby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에피소드들이므로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III)에서는 (I)에서 조금씩 언급이 되었던 Toby의 전쟁 놀이와 사랑이야기가 보다 자세하게 펼쳐지며 Walter 역시 7권에서는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I)과 (III)을 하나로 연결시켜 주고 (II)를 분리하는 것이 옳다. 말하자면 역설적이게도 Tristram이 명실공히 주인공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작품 전체로 보아서 하나의 거대한 일탈부로 전락하는 셈이 된다.¹¹⁾

(I)과 (III)을 하나로 묶는다 해도 그 속에는 많은 이질적인 이야기들이 섞여 있지만 일탈부를 비롯한 다른 이야기들은 뒤에서 논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주로 Toby와 Walter의 성격묘사를 중심으로 해서 앞 장에서 논한 ‘센티멘탈리즘’이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를 살펴보고 하겠다. 여기서 ‘Toby와 Walter의 성격묘사를 중심으로’ 논하는 때는 상당한 의의가 있다. 앞에서 Booth의 논문을 언급했지만 그러한 방식으로 작품의 줄기를 찾아보려는 시도는 그 어려움만큼 오히려 *Tristram Shandy*의 성격에 대한 왜곡을 낳을 수도 있다. 즉 이 소설의 특징이자 강점은 Toby의 비밀이 수수께끼처럼 풀려나가는 정교한 플롯에 있는 것이 아니라 Sterne 특유의 기지와 재치로 가득찬 인물들의 생생한 움직임에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을 놓치게 되면 *Tristram Shandy*의 많은 부분은 의미없는 기괴망측한 이야기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그들 자신의 방식대로 이야기하게 하겠다’고 그가 밝혔을 때(p. 633)는 이러한 의미까지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작가가 인물들에게 부여하는 긍정 혹은 부정의 시각을 제외해 놓고 본다면 위에서 분류한 대로 (I)의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중심은 Walter가 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Tristram의 잉태에서부터 *Tristrapoedia*에 이르는 Walter의 모든 기괴망측한 구상의 좌절이 (I)의 주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III)을 압도하고 이끌어가는 인물은 바로 Toby가 되는데 Booth의 논문도 이를 지지해 줄 수 있는 방증이 된다. 그의 인물들의 미미함 혹은 종속성으로 볼 때 *Tristram Shandy*를 지탱하는 두 가지 관점(혹은 세계관)의 대표자로 Walter와 Toby를 상정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본다.

Toby Shandy는 ‘센티멘탈리즘’의 이상이 긍정적으로 투영된, 작가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인물이며 Walter Shandy는 여러 의미에서 그 대척점에 위치한 인물이다. Walter는 이성(Reason)의 힘을 믿는 사람이다. 그는 추론(Reasoning)과 가설(Hypothesis)과 체계(System)를 좋아했고 그것들을 통해 하늘과 땅도 움직일 수 있다고 믿었다. 지식도 물질처럼 무한히 세분화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었으며 따라서 그는 만물을 항상 타인과는 다른 관점에서 보려고 노력하였다. 문제는 여기에 있었다. ‘센티멘탈리즘’이 이성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듯이 Walter의 이와 같은 자세가 근본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 그러나 그의 추론과 가설이 항상 상제를 벗어나 지엽적이고 특이한 것만을 대상으로 한 편벽된 사고 방식이라는 것이 문제였다. 한달 중 일정한 날에 시계 태엽을 감고 부부관계를 갖는다거나, 세례명과 코의 길이에 대해 터무니없는 신앙을 가지는 등 그는 자신의 생각이 다른 사람과 다르면 다를수록 더 자랑스럽게 여겼다.

—The truth was, his road lay so very far on one side, from that wherein most men travelled,

11) 이 부분을 *A Sentimental Journey*에서 완성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that every object before him presented a face and section of itself to his eye, altogether different from the plan and elevation of it seen by the rest of mankind. —In other words, 'twas a different object, —and in course was differently considered: (p. 382)

이와 함께 Walter가 자신의 추론과 가설을 철학과 과학에 비유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시사적이다. 인간의 이성적 사유능력이 최고로 발현될 때 그것은 참다운 철학과 과학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진정한 의미와 방향의식을 상실하고 기계적 이성에 그칠 때 그 결과는 천박한 ‘철학주의’와 ‘과학주의’로 귀결될 뿐이다. Walter의 계속되는 좌절과 실패는 과학과 철학의 타락에 대한 풍자이며 경고인 것이다.

이에 반해 Toby의 사고와 행동양식은 순수한 무지와 심정적 직관으로 표현될 수 있다. 그는 무엇보다도 추상적이고 논리적인 사유방식을 싫어하였고 ‘무한성, 예지, 자유, 필연’ 등과 같은 거창한 말들을 혐오하였다. (p. 189) 험클어진 매듭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것이 Walter의 방식이라면 한 칼에 끊어버리는 것이 Toby의 방식이었다. (p. 278) Walter가 아들의 세례명이 잘못 지어져서 고민하고 있을 때 Toby는 Tristram과 Trismegistus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도 없다고 쉽게 말해버린다. 진리는 건전한 상식에 기초하는 것이다. 사실 웅변가인 Walter에게 진정한 가르침을 베푸는 것은 바로 늘변의 Toby였다. Tristram의 세례명 개명 문제로 신학자와 법률가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어머니가 자식에게 친척이 되는가?’ 하는 문제를 Kysarcus가 거론한다. 결국 법정에서 긴 논쟁 끝에 어머니에게 불리하게 아니라는 판정이 내려졌다고 그가 이야기하자 Toby가 즉시 되묻는다. “그래서 그 Suffolk 공작부인은 그것에 대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질문이 Kysarcus에게는 ‘예기치 못했던 일’(unexpectedness)이라고 작가는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실상 이 질문은 지극히 당연하고, 또 상식적인 질문이었다. 다만 건강부회로 점철된 논리의 미로 속을 헤매고 있던 Kysarcus에게는 놀라운 일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질문은 ‘최고로 유능한 변호사’(the ablest advocate)의 변론보다 더 그를 당황하게 하는 것이다. 그처럼 황당하게 계속되는 논쟁은 결국 Toby의 한 마디로 결론이 난다. “유식한 어른들께서 뭐라고 하시든 간에 Suffolk 공작부인과 그 아들 사이에는 어떤 혈연적 유대가 틀림없이 있는 법이요.” 이와 같은 기본적인 인식의 차이는 그들의 인간관계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 Toby와 Trim은 신분상 주인과 종의 관계이지만 Toby는 항상 Trim을 친구로(as a humble friend) 대하고 있다. (p. 95, p. 366, p. 580) 전쟁놀이 중에도 Toby는 Trim을 파트너로 생각하여 그의 제안을 진지하게 수용하고(pp. 447-8), 또 Trim의 불편한 다리에 대해서도 언제나 자상하게 배려해 준다. 이 작품의 다른 어떤 인물들 사이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따뜻한 인간적 유대관계가 그 두 사람 사이에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Bobby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Walter의 하인 Obadiah가 ‘Ox-moor’를 개간해야 될 일을 두고 한숨을 쉬는 것과는 상당한 대조를 이룬다. 전반적으로 Toby와 Trim을 제외한 인물들 간의 관계에서는 일차적인 의사소통조차 불가능한 상태에 있음을 느낄 수 있다. 한편 Walter는 주변에 있는 ‘스무 명의 사람을 30분 이내에 확실하게 자신의 적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난 사람이다. (p. 588)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그의 부부관계이다.

It was a consuming vexation to my father, that my mother never asked the meaning of a thing she did not understand. —That she is not a woman of science, my father would say— is her

misfortune—but she might ask a question.

My mother never did. —In short, she went out of the world at last without knowing whether it turned round, or stood still. —My father had officiously told her above a thousand times which way it was, —but she always forgot. (p. 472)

이런 이유로 해서 그들 부부사이의 대화는 항상 명제(a proposition)와 대답(a reply)과 그 다음의 대구(a rejoinder)의 세 마디로 끝나고 그 다음엔 침묵이었다. 그들 부부사이가 원만하지 않다는 것은 1권 1장에서부터 암시되어 있지만, 여하튼 가장 친밀해야 할 부부사이의 애정은 고사하고 대화조차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Walter의 성격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여자는 어리석은 존재이며 그들 속에는 악마가 숨어 있다는 것이 Walter의 여성관이다. 따라서 철학도 과학도 알지 못하는 Shandy부인은 Tristram의 유럽여행 때도 남편의 바지 뜨개질을 하면서 Shandy Hall에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8권에서 Toby가 Wadman부인과의 연애를 드디어 성사시키려는 순간 Walter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부인과 ‘함께’ Toby와 Trim을 찾아 간다. 표면적으로는 여성을 경멸하고, 남녀간의 사랑을 하찮게 보면서도 이렇게 ‘함께’ Toby를 찾아가는 것은 바로 Toby에게는 있으나 자기에게는 없는 어떤 측면에 대한 잠재적인 열등감의 발로인 것이다.

산고에 들어간 Shandy부인과 여성 일반이 겪어야 할 산고에 대해 참다운 동정심을 표한 사람은 바로 여자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말한 Toby였으며(p. 284), 흑인에게서 영혼의 존재를 인정한 것도 바로 Toby였다. 인간과 사물을 향한 Toby의 동정심과 공감이가 가장 희극적으로 나타나는 곳은 아마 ‘파리에피소드’일 것이다.

—I'll not hurt thee, says my uncle Toby, rising from his chair, and going across the room, with the fly in his hand, —I'll not hurt a hair of thy head: —Go, says he, lifting up the sash, and opening his hand as he spoke, to let it escape; —go, poor devil, get thee gone, why should I hurt thee?— This world surely is wide enough to hold both thee and me. (p. 113)

비록 지극히 작은 한 순간의 사건이지만 화자인 Tristram은 거기서 무한한 감동을 받았고, 따라서 Toby를 향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Toby의 종교적 자세를 간단히 살펴 보자. 코가 왜 사람에게 따라 걸고, 짧고 하느냐는 Walter의 터무니없는 질문에 Toby는 명쾌하게 그것은 신의 뜻이라고 대답한다. 사실 코의 길이에 관한 Walter의 황당무제한 변설을 중지시키는 데는 다른 어떤 정교한 이론이나 철학보다도 Toby의 이 한 마디가 더 효과적이다. 이 때의 신은 물론 영혼의 구원이나 내세의 심판을 주재하는 초월적인 신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우리나라와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어떤 정신의 표현이다. Walter가 말한 우리 마음속의 ‘비밀의 샘’(secret spring)이 바로 종교(Religion)라고 Toby가 선언하고 있듯이 종교나 신은 초월적이거나 추상적인 세계가 아니라 자연의 모습을 닮은 우리의 선한 마음씨와 타고난 도덕의식의 원천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작가는 Slawkenbergius의 이야기에서 Strasburg의 시민들이 보여준 광기도 그들이 ‘종교나 자연’(religion or nature)의 부름에 귀 기울이지 않은 데서 비롯된다고 말하고 있다. Sterne의 종교적 자세가 가장 단적으로 아름답게 드러나는 것은 *A Sentimental Journey*의 한 장면에서이다. Taurira산을 올라가다 말의 편자가 빠져서

휴식을 취하러 들어간 어느 농가에서 마침 애찬식(a feast of love)이 벌어지는데 식사후의 가족무도회에서 Yorick은 강한 감명을 받는다.

It was not till the middle of the second dance, when, from some pauses in the movement wherein they all seemed to look up, I fancied I could distinguish an elevation of spirit different from that which is the cause of the effect of simple jollity —In a word, I thought I beheld *Religion* mixing in the dance. (p.110)

일상생활 가운데서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만족할 줄 아는 마음씨가 바로 신에 대한 최대의 경의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은 Walter에 대한 작가의 시선에 다소간 복합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이다. 일단 Walter가 구상하는 모든 계획은 차례대로 실패하게 되어 있고 따라서 그는 이 작품의 주요 풍자대상이 된다. 이 점은 Toby에 대해서 작가가 과분할 만큼의 찬사를 표하고 애정을 나타내는 것에 비해 보면 더욱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그러나 Walter의 편벽된 사고나 그로 인한 계획의 좌절과 실패는 Walter 한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인간 보편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암시를 작가는 던지지 풍기고 있다. 앞에서 인용된 바, Walter가 사물의 일면밖에 보지 못하는 것은 ‘나(Tristram)와 내 사랑 Jenny가 하찮은 문제때문에 서로 싸우는’ 이유와 똑 같으며(p.382), Bobby의 죽음이 Walter에게 가져온 충격에 대해서도 “슬픔에서 슬픔으로 옮겨 가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며 하나가 해결되면 또 하나가 기다린다고 Tristram은 한탄하고 있다. *Tristramoedia*의 실패도 곧 바로 인간의 지혜의 오만에 대한 응징으로 이어진다.

—Certainly it was ordained as a scourge upon the pride of human wisdom, That the wisest of us all should thus outwit ourselves, and eternally forego our purposes in the intemperate act of pursuing them. (p.375)

Walter가 주요 풍자대상이 되면서도 그 풍자가 전형적인 18세기의 풍자전통과는 다른 느낌을 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실들에 연유하며, 그것은 Sterne의 ‘센티멘탈리즘’의 중요한 특징이기도 하다. Swift나 Smollett 등의 풍자와는 달리 Sterne의 풍자에는 분노와 증오가 없으며, Sterne특유의 해학으로 승화가 이루어지고 있다.¹²⁾ 그리하여 Walter는 그 무수한 결점에도 불구하고 작가의 ‘센티멘탈리즘’ 속에서 용서받고 포용되는 것이다. 그는 진실로 동생인 Toby를 사랑하고 있었고 그 본성에 있어서는 솔직하고 관대한(frunk and generous) 사람이었다고 작가는 두 번씩이나 기록하고 있다. (pp. 114, 599) 그리고 이 점은 Sterne의 실제 정적(政敵)을 모델로해서 그린 Dr. Slope에 대한 묘사 혹은 풍자의 어조에서도 충분히 감지할 수 있는 사실이다.

IV. 일탈기법 및 *A Sentimental Journey*

Sterne의 일탈기법(digression)은 18세기 문학의 중요한 한 전통이었다는 점에서 당시로서는 오늘날만큼 낯설지 않았을 것이며, 또한 작품 내에서 Walter의 입을 빌어 언급되듯이

12) *Tristram Shandy*에 붙인 James Aiken Work의 Introduction p. IXV 참조.

John Locke의 연상이론으로 상당한 설명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작가 스스로도 이 기법을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음을 여러 곳에서 밝히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관점에서 *Tristram Shandy*를 조망하든 간에 일탈기법에 관한 논의는 불가피하게 된다.

여기서는 일탈기법이 Sterne 특유의 스타일의 한 표현이며 그 스타일의 정서적 근원은 ‘센티멘탈리즘’에 있음을 밝혀 보고자 한다. *Tristram*의 세례명을 다시 지을 수 있는가를 논의하기 위해서 교회의 신학자들과 법률가들이 모이는데, 그 자리에서 잡자기 Phutatorius가 ‘앗!’ (ZOUNDS!)하고 소리를 지른다. 그 이유는 뜨거운 밤에 데였기 때문인데 Phutatorius는 그 밤을 Yorick 목사가 चु는 것을 보고 그가 자기를 조롱하기 위해 그렇게 했다고 앙심을 품게 된다.

It is curious to observe the triumph of slight incidents over the mind: —What incredible weight they have in forming and governing our opinions, both of men and things—that trifles, light as air, shall waft a belief into the soul, and plant it so immoveably within it, —that Euclid’s demonstrations, could they be brought to batter it in breach, should not all have power to overthrow it. (p. 322)

지극히 사소하고 작은 일 하나가 우리의 생각을 얼마나 크게 바꾸어 놓을 수 있는지를 이 귀절은 설명하고 있다. 일탈의 논리는 여기에 있다. 아무리 작고 하찮게 보이는 사건이나 사물이라도 우리의 사고와 행동에 큰 의미를 지닐 수 있는 것이며 오히려 그 작은 것에서 보다 크고 중요한 진실이 발견될 수도 있는 것이다. 시간적으로는 머릿속을 얼피 스치고 지나가는 한 순간의 생각의 꼬투리, 공간적으로는 뜨거운 밤톨 하나만큼 작은 사물을 추적해보면 그 이면에는 숨겨진 커다란 진실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그 꼬투리 하나를 놓치지 않고 따라가는 것—즉, 일탈—은 진리와 진실에 이르는 길이기도 하다. 그래서 Sterne은 일탈은 ‘햇볕’이며, 독서의 ‘생명이며 영혼’이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p. 73)

예컨대 Toby라는 인물을 구태여 그의 취미(hobby-horse)를 통해서 파악해 보겠다는 생각도 바로 그런 데서 연유한다. 취미는 한 인간의 삶에 있어서 사소하고 부차적인 문제이다. 취미를 통해서 그의 모든 것을 알아낼 수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러나 Toby의 경우는 바로 거기서 그의 실체가 드러난다. 그가 전쟁놀이를 취미로 가지게 된 것은 병상에 누워 있을 때 문병은 손님들과의 대화에서 그가 느끼던 당혹감과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방편에서였다. 말하자면 당시의 Toby로서는 상당히 절실한 문제였던 것이다.¹³⁾ 그리고 그 관계는 병상에서 Namur의 전투로, 그 다음에 Trim과의 만남, 허리의 부상, Wadman 부인과의 사랑이야기 등으로 계속 이어져서 Toby의 참모습이 차츰 드러나게 만든다. Toby의 취미는 그 자체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이면에 수많은 이야기를 숨기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상징적이게도 그의 전쟁놀이 취미는 결국 그의 삶의 전부가 되다시피함을 볼 수 있다.

짧은 한 순간, 한 특정한 사건의 절묘한 아름다움을 포착해내는 것은 구태여 그의 일탈 기법을 연관시키지 않더라도 그의 스타일의 가장 큰 장점이 되며 또한 그의 ‘센티멘탈리

13) Toby의 취미(hobby-horse)가 Walter의 가설(Hypothesis) 만큼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간주될 수 있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바로 이 점 때문에 Walter의 비정상성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즘'의 중요한 특징이 된다.¹⁴⁾ 가령 어린 Tristram이 할례를 받게 되는 것도 그 순간의 다 소간 희극적이며 또한 비극적인 상황설정의 재미에 있는 것이지 그 이야기를 계속 끌고나가 어떻게 해결이 되었나를 보여주는 것은 절대로 Sterne의 스타일이 아니다.

'센티멘탈리즘'의 이와 같은 기법과 정신은 *A Sentimental Journey*에서 좀 더 강조되고 또 애용된다. 항상 숙녀들에게만 구걸을 해서 멋지게 성공하는 거지의 비결이 아침이라는 것을 어두운 극장 골목에서 발견했을 때 Yorick은 그 상황(situation)의 의의를 이렇게 설명한다.

I count little of the many things I see pass at broad noon-day in large and open streets. —Nature is shy, and hates to act before spectators; but in such an unobserved corner, you sometimes see a single short scene of hers worth all the sentiments of a dozen French plays compounded together —and yet they are absolutely fine. (p. 98)

밝은 한낮, 대로가 아닌 어둡고, 후미진, 뒷골목에서 삶의 진수가 발견될 수도 있는 것이다. *A Sentimental Journey*는 여행담(travelogue)이라는 소재의 특성때문에 더욱 이러한 방식의 서술이 어울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스쳐지나가는 도시의 한 모습에서 그 도시의 모든 것을 꿰뚫어야 하는 것이 여행담의 본령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Sterne의 방식으로는 그 대상이 하찮고 사소한 것이면 것일수록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I think I can see the precise and distinguishing marks of national characters more in these nonsensical minutiae, than in the most important matters of state. (p. 46)

그러나 *A Sentimental Journey* 자체의 문학적 성과를 논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특성이 작품에 좋은 결과만을 낳았다고 하기는 어렵다. 즉 그 강도가 너무 지나치고, 기법상 너무 자주 애용되고 있어서 작품이 주는 감동이 타성화되고 진부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작품 제명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소설은 '센티멘탈리즘'이 정면으로 다루어진 작품이지만 *Tristram Shandy*에서보다 그것이 더 잘 표현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조그마한 감동적인 장면들의 단선적인 나열로 인해 작품의 분위기가 너무 단조롭고 획일화되어 있어서 자연스러움이 상실되고 있다. 물론 앞에서 인용한 '애찬식' 장면에서와 같이 '센티멘탈리즘'의 정수를 보여 주는 묘사도 없지 않으나 전반적으로 너무 타성화되어 있다는 느낌을 금할 수 없다. 특히 *Tristram Shandy*의 활력과 다양성, 재치를 목격한 독자로서는 Stedmond가 지적하였듯이 Yorick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이상'인 박애주의(philanthropy)와 희롱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¹⁵⁾ *Tristram Shandy*의 '센티멘탈리즘'이 감상주의로 타락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는 Sterne 특유의 유머감각과 균형감각이다. 한참동안 동정과 연민을 베풀다가도 어느새 그의 유머감각은 Tristram 자신을, 아니면 독자를 희화화(戲畫化)함으로써 그 감정에서 쉽게 빠져나오게 만든다. 7권 32장의 '당나귀에피소드'가 대표적이

14) Virginia Woolf, *The Common Reader: Second Series*(London: The Hogarth Press, 1986), p. 82 참조. Hartley, 앞의 책 p. 36에서 Cross는 Sterne을 최초의 '인상주의자들' 중의 하나라고 말한다.

15) Hartley, 앞의 책, p. 39 참조.

다. 프랑스여행 중 Tristram은 어느 여관을 나오다가 문앞을 막아서는 당나귀 때문에 발을 멈춘다. 그러나 곧 그 당나귀가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을 받는 것을 보고는 감상에 빠져 당나귀와 이야기를 주고 받으며 먹을 것을 준다. 이 때의 동정심은 또한 자기 자신의 동정심이 과연 진실한 것인가 하는 자기반성까지 담고 있어 더욱 감동적이다.

—and at this moment that I am telling it, my heart smites me, that there was more of pleasantry in the conceit, of seeing how an ass would eat a macaroon— than of benevolence in giving him one, which presided in the act. (p. 524)

그러나 이런 감상적인 순간은 곧 이어(당나귀주인인 듯한)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서 ‘이놈!’ (Out upon it)하고 소리치는 바람에 회극적으로 변한다. 그 바람에 당나귀가 급히 지나가면서 광주리끝으로 그의 바지를 ‘가장 끔찍한 방향으로’ 찢어놓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Out upon it!’은 이중적인 의미를 띠면서 Tristram은 스스로를 회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나치게 감상적으로 전락할 만한 장면에는 언제나 페이지소스와 유머 사이의 균형을 취하려는 작가 Sterne을 찾아 볼 수 있다.

A *Sentimental Journey*의 결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감정의 지나친 과장, 혹은 전반적으로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분위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것을 ‘센티멘탈리즘’에 대한 풍자로 이해해주는 평가도 있어 왔다.¹⁶⁾ Sterne은 결코 ‘센티멘탈리스트’가 아니며 따라서 A *Sentimental Journey*는 ‘센티멘탈리즘’에 대한 조롱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Tristram Shandy*의 ‘센티멘탈리즘’을 검토해온 우리로서는 이 주장에 쉽게 승복할 수 없으며, 무엇보다도 A *Sentimental Journey*에 구현되었다고 그들이 주장하는 전면적인 풍자방식은 Sterne의 체질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싶다. 아직까지는 Virginia Woolf의 다음과 같은 발언이 A *Sentimental Journey*에 대해서는 유효하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Indeed the chief fault of A *Sentimental Journey* comes from Sterne's concern for our good opinion of his heart. It has a monotony about it, for all its brilliance, as if the author had reined in the natural variety of his tastes, less they should give offence. The mood is subdued to one that is too uniformly kind, tender, and compassionate to be quite natural. One misses the variety, the vigour, the ribaldry of *Tristram Shandy*. His concern for his sensibility has blunted his natural sharpness, and we are called upon to gaze rather too long at modesty, simplicity, and virtue standing rather too still to be looked at.¹⁷⁾

참 고 문 헌

- Booth, Wayne. "Did Sterne Complete *Tristram Shandy*?" MP, XLVII(1951), 172-183.
 Hartley, Lodwick. *Laurence Sterne in the Twentieth Century: An Essay and Bibliography of Sternean Studies, 1900~1965*. Chapel Hill: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66.

16) Hartley, 앞의 책, pp. 35-42, "Sentimentalist or Jester?"장 참조. Rufus Putney, Ernest Dilworth 등이 대표적이다.

17) Woolf, 앞의 책, pp. 83-84.

- Lemon, Lee T. & Reis, Marion J. ed. *Russian Formalist Criticism: Four Essays*.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965.
- Piper, William Bowman. *Laurence Sterne*. New York: Twayne Publishers, 1965.
- Read, Herbert. *Essays in Literary Criticism*. London: Faber & Faber, 1969.
- Traugott, John. *Tristram Shandy's World: Sterne's Philosophical Rhetoric*. New York: Russel & Russel, 1954.
- Traugott, John. ed. *Laurence Sterne: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1968.
- Willey, Basil. *The Eighteenth Century Background: Studies on the Idea of Nature in the Thought of the Period*. Boston: Beacon Press, 1961.
- Wolf, Virginia. *The Common Reader: Second Series*. London: The Hogarth Press, 1986.